

가전기기 보급, 어디까지 왔나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가전제품 보급률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외산과 국산 제품의 비율은 얼마인가, 『2000년 우리 가정의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어떤 양상을 띠까, 국민 개인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현재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수요형태와 향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수요 예측을 위해 최근 조사 발표한 『가전기기 보급률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지방간 가전보급률과 국산과 외산제품의 비율, 향후 우리 가정의 가전제품 보급률 등을 알아본다.

- 편집자 주 -

가전제품 지역별 보급률 소득향상으로 평준화 추세

최근들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주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지역별 보급률 면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평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대형 제품을 위주로 대체수요가 많은 TV의 경우 서울이 평균 137%인 것을 비롯해서 직할시(124%), 지방도시(135%)·군(119%) 등으로 나타났으며, 냉장고의 경

우도 서울(106%)·직할시(106%)·지방도시(108%)·군(106%) 등이 모두 『1가구 1대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기의 경우도 『1가구 1대』의 100% 보급률은 아니지만 서울(95%)을 비롯해 직할시(96%)·지방도시(96%)·군(91%) 등이 모두 90%를 넘는 보급률을 기록하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제품으로 꼽혔다.

이밖에 선풍기는 전국적으로 평균 보급률이 135%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없으며, 98%의 보

유율을 보인 다리미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어컨을 비롯한 일부 품목은 서울을 포함한 시단위 지역과 군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어컨의 경우 서울지역의 보급률은 18%인데 비해 군단위는 10%로 나타나 서울 지역 가정들이 군단위에 비해 2배정도 많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컴퓨터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보급률은 68%로 2가구당 1대 이상

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군단위 지역은 41%로 20% 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직할시와 중소도시의 컴퓨터 보유율은 각각 49%와 57%로 군단위 가정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서울과 비교해서는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레인지의 경우는 서울 52%, 직할시 56%, 기타 시지역 59%의 보급률을 나타낸 반면 군지역은 46%에 불과하며, 진공청소기도 서울과 중소도시가 각각 60%와 64%로 직할시(54%)와 군지역(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과 컴퓨터의 경우 일 반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월평균 3백만원 이상의 소득자의 경우 30% 이상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지만, 월평균 5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에어컨 보유율은 2%에 그치고 있다는게 이를 반증해준다. 컴퓨터의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유율이 크게 달라 월평균 소득액이 50만원 이하인 가정의 보급률은 32%이지만 2백만원 이상의 가정은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가전제품

외제·국산 보급비율

현재 국내에 보급돼 있는 가전 제품 가운데 국산 대 외산 제품의 비율면에선 분명 국산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외산제품의 국내유

[주요 가전제품 외제·국산 보급비율] (단위: %)

제 품 명	외 제			국 산		
	93년	95년	증가율	93년	95년	증가율
컬러 TV	1.45	1.2	-17.2	98.55	98.8	0.3
냉장고	1.38	3.1	124.6	98.62	96.9	-1.7
세탁기	1.21	0.9	-25.6	98.79	99.1	0.3
선풍기	0.33	0.3	-9.1	99.67	99.7	0.0
에어컨	1.89	2.3	21.7	98.11	97.7	-0.4
컴퓨터	1.86	2.9	55.9	98.14	97.1	-1.1
전자레인지	1.19	0.9	-24.4	98.81	99.1	0.3
녹즙기	7.78	5.3	-31.9	92.22	94.7	2.7
식기세척기	16.67	20.3	21.8	83.33	79.7	-4.4
오디오	4.95	7.0	41.4	95.05	93.0	-2.2
CD	-	16.8	-	-	83.2	-
비디오	5.24	4.1	-21.8	94.76	95.9	1.2
컴퓨터프린터기	-	10.0	-	-	90.0	-
무선전화기	3.96	3.9	-1.5	96.04	96.1	0.1
홀팩스	-	3.3	-	-	96.7	-
가습기	0.91	2.0	119.8	99.09	98.0	-1.1
비디오폰	-	1.0	-	-	99.0	-

입이 늘어나면서 외산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서는 1월1일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는데 수입선 다변화 해제품목까지 늘어나고 있어 외산제품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전이 발표한 『가전기기 보급률』보고서는 향후 외산 가전제품의 수입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점유율이 높은 외산 가전제품은 소형 가전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품별로 보면 토스터가 전체의 31.1%로 가장 높고 이어 다리미(26.7%)

헤어세트(23.6%), 식기세척기(20.3%) 순으로 나타났다.

95년 들어 점유율이 가장 크게 높아진 제품은 전기곤로이다. 이 제품은 지난 93년 3.23%의 점유율에서 95년 13.7%로 2년 사이에 무려 32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 95년 점유율이 93년과 비교해 2배이상 신장한 제품으로는 식기건조기·냉장고·가스레인지후드·가습기·전기팬히트 등을 빼놓을 수 없다. 식기건조기의 경우 지난 93년 0.72%에서 95년 1.7%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냉장고는 1.38%에서 3.1%로 가스레인지후드는 0.58%에서 1.7%, 가습기는 0.91%에서 2.0%, 전기팬히트는 0.78%에서

2.6%로 급신장했다. 또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약탕기가 3.17%에서 4.4%로 1.3%포인트 늘어난 것을 비롯해 토스터는 23.6%에서 31.1%로, 전기오븐은 8.52%에서 14.7%로, 식기세척기는 16.67%에서 20.3%로 적지 않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55.9%포인트 늘어나 전체시장의 2.9% 점유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이 상기온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에어컨시장에서 외산의 비율이 21.7% 포인트 증가해 2.3%를 차지했다.

이에반해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품목들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녹즙기의 경우는 93년 대비 95년도에 31.9%포인트 감소해 전체시장의 5.3%를 점유하는데 그쳤으며, 세탁기는 25.6%포인트 줄어 0.9%, 컬러TV도 17.2%포인트 감소해 1.2% 차지하는데 그쳤다.

주요 가전제품 향후 보급률 전망

향후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보급률이 1백%를 넘은 제품 중에는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1백% 보급률이 한계인 품목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보급증가율을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보급증가율 현황

[주요 가전제품 보급률 전망] (단위 : %)

연도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비디오	전자레인지	에어컨	진공청소기
1996	154	117	95	84	60	14	66
1998	163	121	97	91	70	16	74
1999	166	124	98	93	74	18	77
2000	170	126	98	94	78	19	80
2002	175	129	99	97	84	22	84
2004	179	132	99	98	88	25	85
2006	182	135	100	99	92	28	87
2007	183	136	100	99	93	29	88

과 함께 일본·미국 등 선진국들의 보급률 추이 등을 기초로, 오는 2007년까지 가전제품의 보급률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현재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제품은 컬러TV이다. 이 제품은 대체·중복수요가 활발히 일어나 가전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컬러TV는 전파매체의 발전과 맞물려 고기능화 추세를 보이면서 라이프사이클이 가장 짧은 제품으로, 지난해 국내 보급률이 137%에 이르렀다.

『1가구당 1대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현재 보급률은 183%로, 1가구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84.4%에 달한다. 그래서 TV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보급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컬러TV의 보급률은 위성방송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전년대비 17%포인트 신장한 154%를 보이고 있고, 매년 2~3%포인트 증가해 오는 2000

년에는 170%, 2007년도에는 일본수준인 18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89년 보급률 1백%를 넘어선 냉장고는 대부분이 대체수요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105%에 이어 올해 117%, 2000년 126%, 2007년 1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냉장고와 같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세탁기는 지난해 국내 보급률이 96%인데 비해 일본도 98.7%로 별 차이가 없으며, 오는 2005년도에 들어서서는 보급률 100%로 1가구당 1대씩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VCR는 지난해 국내 보급률이 77%에서 올해에는 84%로 늘어 매년 3~4%포인트씩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에 들어서면 9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레인지의 보급률은 53%로 한가구 건너 한가구씩 전자레인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아 올해 전자레인지 보급률은 지난해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한 60%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매년 4~5%씩 늘어나 2000년에는 78%, 2007년에는 9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에어컨의 보급률은 일본이 115.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에 머물고 있다. 이 제품은 향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는 2000년에는 19%, 2007년에는 29%로 예상된다.

지난해 63%의 보급률을 보인 청소기의 경우 2007년에는 88%로 예측되고 있다.

소형가전제품 향후 보급률 전망

가전기기 보급률은 일반적으로 보급 초기단계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생활수준 향상과 제품의 가격하락으로 보급 증가율은 단기간에 급증추세를 보인다.

또한 보급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 포화상태에 이르면 이때부터는 품질과 기능면에서 한차원 높은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대체·중복 수요현상이 두드러져 보급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기도 한다. 지난 91년 가구당 보급률이 1.6대까지 올라갔던 선풍기의 경우 93년 이후 에어컨의 보급확대에 따른 대체수요가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93년도에는 가구당 14대, 95년도에는 가구당 1.35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96년 이후 선풍기에 각종 기능을 부가한 제품이 늘어나

[소형가전 보급률 전망]

(단위: %)

연도	카세트	가습기	선풍기	전기밥솥	녹즙기	다리미	드라이기
1996	89	30	153	74	40	100	111
1997	91	32	155	76	41	101	116
1998	92	34	156	77	43	101	120
1999	94	36	158	79	44	102	124
2000	95	38	159	80	45	103	128
2002	96	41	161	82	47	104	134
2004	98	44	164	85	48	105	139
2006	98	46	166	86	48	105	143
2007	99	47	167	87	49	106	145

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 다시 보급률이 높아져 96년 1.53대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급격한 성장률은 아니지만 선풍기의 가정보급률은 98년 156%, 2000년 159%, 2002년 161%, 2004년 164%로 160% 안팎의 보급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온밥통의 경우 대체품목인 전기보온밥솥이 고기능화로 인한 시장잠식으로 보급률이 역신장해 지난 95년도 75%의 보급률을 보이던 것이 해마다 1~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오는 2000년에는 69%, 2007년에는 64%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전기보온밥솥은 보온밥통의 기능 흡수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올해에는 74%의 보급률을 보이고 앞으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2007년에는 8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때 섯가루 파동으로 곤욕

을 치렀던 녹즙기(주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급 증가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올해에는 40%에서 오는 2000년에는 45%, 2007년에는 49%로 2가구에 1대꼴로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신도시 아파트단지 건설되면서 다소 늘어나기 시작했던 가습기는 올해 30%의 보급률을 보이는데 이어 해마다 1~2%씩 증가해 2007년에는 47%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급률이 100%를 넘은 헤어드라이어의 경우 올해에는 111%에 이어 2000년에는 128%, 2007년에는 145%까지 늘어나고, 카세트의 보급률은 올해 89%에서 오는 2007년에는 99%로 1가구당 1대꼴로 보유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올해 보급률이 100%대로 올라설 다리미는 대체수요에 의존하면서 오는 2007년에는 106%로, 전기장판의 보급률은 현재 2가구당 1대꼴에서 2007년에는 7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전자신문